

아버지의 낡은 지갑

엄마의 옷장 깊숙이 간직한 아버지의 흔적
낡은 지갑 속에는 집주소와 전화번호
단출한 살림처럼 박힌 명함 한 장만
수십 년 공직생활의 지위와 경륜은 보이지 않고
아버지의 손때만이 나뭇처럼 반들반들합니다

여름방학에 불쑥 관사에 들어서니 아버지는 김치보시기 없이
맨 국수를 간장으로만 간해서 점심을 드시는 중이었습니다
관차를 직원들에게 내주고 툭툭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아버지가
찬 없이 허기만 달래는 모습이 가슴에 징을 쳤습니다

아버지는 값싼 지갑을 받자 싱글벙글하며
신분증과 명함을 꽂아 최고의 보배인 듯 자꾸 어루만졌습니다

지금도 생생하게 그려지는
신문지 한 장까지 차곡차곡 모아서 폐지 줍는 어르신께 드리고
해진 바지를 기워 입고 해외 출장을 가던 아버지
아버지와 둘이 자취할 때
시장 난전 할머니의 시든 채소를 먼저 팔아주라던 말씀은
가파른 언덕길을 마주할 때
삶의 안내서가 되어 줍니다

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던 아버지 냄새를 안겨줍니다
돌아가실 때까지 쓰셨던 낡은 지갑이